

# 인쇄술이 시각 중심의 근대문명 낳았다

구텐베르크의 인쇄혁명이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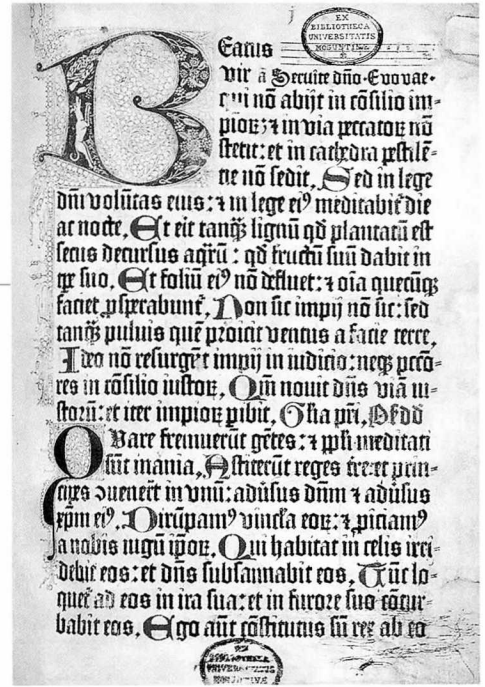
임상원 |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은 인간의 오감을 시각 하나만으로 환원시키고 인쇄 이전 구어문화의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상식의 공간을 균일성, 획일성, 선형성으로 일관하는 근대의 공간으로 바꿔놓았다. 근대의 공간에서 인쇄술은 사물과 세계의 분절과 환원을 통해 인간 감각의 자연적인 조화를 깨뜨리고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생명력 상실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언어(language)와 말(speech)은 감각의 외화(外化)로 “인간이 경험과 지식을 용이하게 운반하고 우리가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축적하는 것을 가능케 하는 도구이다.” 언어는 그것이 경험을 저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번역한다는 의미에서 메타포다. 화폐도 그것이 기술과 노동을 저장하고 또 한 기술을 다른 기술로 번역한다는 의미에서 메타포다. 우리는 모든 감각들을 다른 감각으로 번역하는 일을 우리들의 삶에서 항상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수레바퀴든 알파벳이든 혹은 라디오든 번역을 하는 특별한 기술적 도구에 대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감각의 거대한 확장이 폐쇄적 체계를 만든다’는 점이다. 자연상태로서 우리의 감각들은 폐쇄적이지 않으며 그들은 우리가 공유의식(consciousness)이라고 부르는 경험 속에서 이 감각내용을 저 감각내용으로 끝없이 서로 번역한다. 그런데 우리의 확장된 감각들, 도구들, 기술들은 우리들의 오감들을 폐쇄적으로 만들어 이들 감각들이 집합적으로 인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했다. 즉 감각들간의 소외현상이 생겼다. 시각과 촉각간에, 시각과 음성간에 갈등을 낳고 시각이 다른 감각들을 소외시켰다. 특히 인쇄술은 감각간의 상호작용을 배제한 시각중심의 거대한 폐쇄체계를 낳았고 이것이 시각중심의 근대문명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맥루한이 《구텐베르크 은하계》(임상원, 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 끊임없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 인간의 오감을 시각으로 환원시킨 인쇄문화

인쇄와 근대문화가 시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표음 알파벳은 음소라고 하는 몇 개의



1457~59년에 양피지에 인쇄한 (시편)으로 최초의 삼원색 인쇄물이다.

균질적인 단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들의 조합에 의해 사고와 세계가 표현된다. 상형문자가 표현 대상과의 사이에 맺던 묘사적 관계를 전혀 갖지 않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계는 어떤 신화적이고 시적인 질적 차원을 상실하고 그 내용이 무엇이든 알파벳 음소로 분절돼 환원된다. 분절 및 단편화와 함께 선형성 또한 시각화 과정의 특징이 된다. 인쇄된 페이지 안에 단편들의 조합으로 표현된 세계는 그것을 순서대로 읽어 나갈 것을 요구한다. 이는 사물들의 동시적 공존성(simultaneity)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에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시각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눈으로 보는 것을 일차적으로 의미하지만 맥루한의 경우 이보다 핵심적이고 풍부한 함의가 담긴 하나의 메타포로 이해해야 한다. 서구에서 합리적이라는 말은 '획일적이고 계속적이며 원인과 결과가 연속하는 것'을 뜻한다. 맥루한은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계적인 분절에 의한 획일성, 연속성, 반복가능성 등이 시각적이라는 말의 핵심적인 의미고 이에 기초한 인간관계와 사회과정의 진행이 시각화의 과정이다. 맥루한은 근대화를 이런 시각화의 과정으로 보았다.

인쇄 이전의 구어문화는 다원적이고 복합 감각적인 청각적 상식의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기 위한 시점이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듣기 위한 귀는 있을 수 없다. 전후좌우에서 소리는 동시에 들리는 것이고 시각에서와 같이 어떤 것을 중심으로 보기 위해 다른 것을 배제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원근법적 공간은 이런 시각의 지배에 의해 가능한 공간이다. 다른 감각은 배제된 시각만에 의한 세계의 재현, 하나의 시점을 중심으로 사물들을 배열하고 왜곡함으로써 삼차원적 현실감

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시점에 의해 현실을 지각하도록 하는 것이 근대적인 시각적 공간이다. 원근법적 시각공간이 나타나게 된 것은 인쇄술의 기계들, 즉 복잡성의 배제 및 시각중심으로의 단편화, 시각적 단편들의 연속적인 배열 그리고 연속적인 배열을 위한 단편들의 획일화 등이 내면화됐기 때문이다.

**균일성 · 획일성 · 선형성으로  
근대 구축돼**

인쇄는 또한 언어를 표준화시키게 된다. 언어가 표준화되면서 읽기가 쉬워졌고 청각적인 의미의 실마리

를 찾기 위해 그것을 소리내 읽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 즉 듣기의 역할이 없어진 것이다. 읽기가 목독을 의미하게 되면서 보는 것과 듣는 것은 완전히 분리됐다. 옹에 따르면 목독이 새로운 종류의 내적 발화와 새로운 고립의 수단을 가져왔다. 목독의 심리학적 작은 초기의 근대적 개인주의였다. 지식의 통로에서 말하기와 듣기가 배제되고 보기만이 침묵 속에 남게 됐다. 침묵 속에 홀로 마주하는 인쇄된 책 속의 세계는 이전의 화술에 관련된 감각과 그 음악적이고 모사적인 차원이 배제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산문이 지배적인 세계가 됐다.

시각화된 인쇄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식 또한 이전의 것과 달라지게 된다.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어떤 사고과정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지식의 형태를 합당한 지식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그 변화의 내용이다. 그것은 근대 과학의 지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맥루한에 따르면 이는 합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시각화된 혹은 시각적인 지식이다. 자신만의 특질을 지닌 개개의 사물들을 유한의 음소, 원소, 혹은 변인으로 환원시키고 순차적이고 인과적인 형태로 조합시켜 선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근대적 지식의 성격이다. 또 근대적 지식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을 요구하는 바 경험 가능한 것, 볼 수 있는 것, 즉 측정 가능한 것만이 지식의 대상으로 여겨지게 됐다. 이에 반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제시될 수 없는 것 즉 특정한 변인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 따라서 측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현실적 부분 혹은 관계들은 지식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원될 수 있는 형태로 왜곡된다.

사물을 혹은 세계를 일관된 선형적인 방식으로 보기 위해서는 또한 일정한 시점을 유지할 것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시점은 인쇄 이후 발전된 글쓰기의 방식으로 인쇄 이전 즉 중세시대까지는 한 작품 속에 일관된 시점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없었다. 사물과 인간의 여러 측면과 국면들이 동시적으로 존재하며 이런 국면들이 일정한 시점 하에 순차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그 국면들을 자유롭게 옮겨 다니는 것이 이 시대 작품의 성격이었다. 서로 다른 성격들의 동시 공존, 하나의 균질적인 단위로 환원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들의 배열(configuration/mosaic/galaxy)이 인쇄 이전의 삶과 지식의 형태였다. 순차적인 절차에 따라 얻어지는 하나의 전망으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복잡한 전체를 모든 감

각을 통한 하나의 이미지로 포착해내는 지식을 맥루한은 시각적이 아닌 합리적인 지식으로 봤고 이것이 그가 메타포와 레토릭, 전자 미디어의 동시성, 청각-촉각적 공간을 강조한 이유다.

맥루한이 근대 시각문명의 핵심적인 성격으로 보는 것은 균질성, 획일성, 선형성으로 이는 사물과 세계의 분절과 환원을 통한 표준화를 통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맥루한이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구분할 수 없는 것의 인위적인 구분, 보이는 것을 위한 보이지 않는 것의 배제 즉 양적인 지식을 위한 질적인 지식의 배제, 중심에 의한 주변의 지배다.

**인쇄술 발명으로  
커뮤니케이션 생명력 상실돼**

모더니티에 대한 맥루한의 비판적 시각은 인쇄술이라는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의해 인간 감각의 자연적

인 조화가 깨졌고 이와 함께 패권적이고 비인간적인 문화가 생성됐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활자화된 문자 즉 인쇄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의 생명력이 상실됐다는 것이고 이것이 소외된 근대인과 획일화된 근대문화를 낳았다는 것이다.

모더니티에서 맥루한이 감지한 흐름은 비인간화고 그 한 가운데는 인쇄술이 있다. 그것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재하게 된 이유다. 시각이 인간의 감각중 가장 비인간적인 감각이듯, 말에서 문자로 또 인쇄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자연적인 인간의 상태에서 멀어지는 것이었다. 말이 인간 감각의 최초의 외화라면 문자는 말의 외화, 또 인쇄는 문자의 외화다. 그 과정에서 인간이 원래 갖고 있었던 풍부함과 생명력은 여러 차례로 걸러져서 이제는 그 생명력을 상실한 화석화된 커뮤니케이션과 문화만이 남게 됐다는 것이 그 요지다. 이 화석화된 커뮤니케이션과 문화를 맥루한은 모더니티의 성격으로 보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을 그것이 연결돼 있는 많은 차원들로부터 분리시켜 시각화하고자 하는 태도이자 이 시각화된 것만을 믿고 그 기초 위에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각화된 것은 원래 그것이 자리잡고 있던 곳에서의 의미를 상실하고 그 표면만 떠오르게 된다. 혹은 원래의 입체적인 성격을 상실하고 평평한 2차원의 것으로 변형된다. 그 과정에서 상실되는 것은 깊이이다. 그래서 맥루한이 보기에 근대사회는 표면만 비추는 조사광(light on)의 사회다. 투과광(light through)이 지나갈 깊이를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과광이 비춰주는 존재 전체의 공명도 사라졌다. 혹은 그것은 사회의 무의식으로 그 어둠속으로 가라앉아 있다. 맥루한이 되살리고 싶어한 것은 바로 이런 깊이이다. 이것은 조이스가 《피네간의 경야》에서 밤의 무의식 속에 있던 것을 한낱의 깨어 있는 의식으로 바꾸고자 한 바로 그것이다. ■

임상원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UCLA에서 언론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자유주의의 언론자유》(커뮤니케이션 이론의 규범적 가치) 《한국사회와 언론》 등을 펴냈다.